

분과 6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1

사회 : 이수미(성균관대학교)

외국인 대학원생의 불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어교육 전공 중국인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김민아(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우리와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들도 학습자이기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에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이며 이 감정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삶의 한 과정에 존재하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에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감정, 즉 ‘정의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불안’은 한국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의적 요소’로서¹⁾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외국의 언어 교육에서 만들어진 ‘불안’에 관한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여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정진현, 2019).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불안’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한국어 학습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원생²⁾은 단순히 ‘한국어 학습자’라는 정체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며 ‘한국어 (예비) 교사’라는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교육’이라는 학문에 있어 ‘(예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예비) 한국어 교사’, ‘(예비) 한국어 전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들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처한 특수한 맥락으로 인해 야기된 ‘불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박사과정생’이 처한 맥락 속에서 이들의 ‘불안’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불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어 학습자’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어 교사’이자 ‘한국어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어교육 학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1) 특히 불안은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language performanc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습 저해 요소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중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정진현, 2019: 1).

2)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 추이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바로 대학원 과정 유학생 규모의 증가에 있다. 특히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 규모는 2009년 3,366명에서 2020년 13,156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5년 이후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임희진, 2021: 188).

2. 선행연구

한국어교육에서는 ‘불안’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때, 한국어교육에서의 불안은 일반적인 ‘불안’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불안(unique anxiety)’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의 ‘불안’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의 ‘불안’도 이러한 ‘외국어 불안’³⁾의 한 갈래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혜민·안정민(2019)은 2019년 2월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불안’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한국어교육에서는 2003년부터 ‘불안’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 이르러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불안’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 간의 관계, ‘불안’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불안’과 다른 정의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⁴⁾ 이때 한혜민·안정민(2019)은 ‘불안’의 영역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감’, ‘외국어 학습을 제외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을 제외한 ‘외국어 구사 시 느끼는 외국어 불안감’으로 한정하였는데 국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러한 구분은 조금은 인위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는 교실 안팎 모두에서 목표어인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진현(2019)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안’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진 외국어 학습자 ‘불안’ 척도⁵⁾를 사용하고 있어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관점을 넘어 ‘한국어’를 ‘한국’에서 학습하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비고츠키의 ‘활동이론’에 주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처한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의 ‘불안’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진현(2019)의 시도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체로 양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외국에서 만들어진 불안 척도를 대체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의 특수성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정진현(2019)은 대학부속 언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한국어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맥락 안에서의 ‘불안’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유지윤(2019)은 ‘한국어 학습자’이자 ‘한국어 예비 교사’라는 중첩되어 있는 정체성에 주목하여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의 갈등 및 극복의 양상을 내러티브 탐구의

3) 외국어 학습 불안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Horwitz et al.(1986)에서도 외국어 학습 불안을 ‘언어 학습 과정의 독창성으로 나타나는 교실 학습과 관련된 자기 인식, 믿음, 감정 및 행동의 명확한 복합체’라고 정의하며(p.128), 외국어 학습 불안을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 불안과는 구분하였다. 이는 외국어 학습 불안을 외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걱정과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보고(MacIntyre, 1999, p.27), 단순히 다른 영역에서 전이된 불안이 아닌 제2언어와 관련된 독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Dörnyei, 2005, p. 199)(정진현, 2019: 9-10).

4) 한혜민·안정민(2019)에 따르면 ‘불안’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총 34편이었으며, ‘말하기(14편) > 읽기(10편) > 듣기(6편) > 쓰기(4편)’이었으며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연구는 총 7편, ‘학습 동기’와 관련한 연구는 총 15편이었으며 한국어 습득과 ‘불안’을 포함한 정의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총 9편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문화 적응’과 ‘불안’의 관계, ‘불안’이 ‘교실 안’, ‘교실 밖’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5) 국내에서 진행된 한국어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Horwitz et al.(1986)의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밖에 MacIntyre와 Gardner(1994)가 개발한 언어의 ‘입력-처리-산출 단계에 따른 불안 척도(IPOA: Input, Processing and Output Anxiety)’, McCroskey(1985)의 ‘의사소통 불안 척도(PRCA: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元田(2000)의 ‘일본어 불안 척도(JLAS: Japanese Language Anxiety Scale)’ 등이 활용되었다(정진현, 2019: 3).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불안’에 주목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맥락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2언어 자아’에서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의 괴리에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관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⁶⁾ 더불어, ‘한국어 예비교사’, 나아가 ‘한국어 전문가’에 대한 정체성까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의 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석사과정수료생’ 혹은 ‘석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박사과정’이라는 맥락은 이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질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외국인 대학원생이 처한 맥락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불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⁷⁾을 염두에 두고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가 맥락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염지숙, 2009; 손효영·염지숙, 2013; 105 재 인용).”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어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외국인 대학원생이 느끼는 ‘불안’은 이들을 둘러싼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이들이 하게 된 경험이 내러티브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2. 연구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중에서도 ‘중국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연구 참여자로 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이 점차 다양한 국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가’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⁹⁾한 ‘이링링’과 ‘양미미’¹⁰⁾를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6) 유지운(2019)에 실려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불안”이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이상적 자아’ 혹은 ‘당위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7) 클래딘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 50)는 내러티브 탐구를 공유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설계하기 위해 듀이(Dewey, 1938)의 경험 이론을 토대로 ‘삼차원적 탐구 공간(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라는 은유를 개발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탐구 내 시간성(temporality), 장소(place), 그리고 사회성(sociality)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적 공간을 고려하며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가 항상 과거-현재-미래의 변화하는 시간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공간적·관계적 맥락 속에 자신을 상호작용적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을 항상 자각할 필요가 있다(유지운, 2019: 28).

8) 최근 중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송출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집단의 인식과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표성을 가진다(임희진, 2021: 189).

9)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2020년 상반기에는 ‘이링링’과 ‘양미미’ 모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지만 2021년 10월 현재는 ‘이링링’, ‘양미미’ 모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링링	양미미
1.	국적	중국	
2.	성별	여자	
3.	나이	(한국나이) 29세	(한국나이) 30세
4.	학교/전공	학부	중국 현지 대학교, 한국어학과 (대학교 3학년: 한국의 '나'대학교로 교환학생)
		석사	중국 현지 대학교, 외국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전공
		박사	'가'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링링'과 '양미미'는 국적, 성별, 나이, 학부 전공까지 많은 것이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의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특수한 맥락이므로 이러한 맥락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의도적으로 '석사과정'을 '한국의 대학원'에서 마친 '이링링'과 '중국 현지 대학원'에서 마친 '양미미'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석사과정'을 둘러싼 맥락의 차이로 인해 '이링링'과 '양미미'가 느끼는 '불안'의 양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박사과정'이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 있는 이들이 느끼는 '불안'에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이라는 맥락의 특수성이 반영된 공통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링링'의 경우에는 성향적으로 '내향성'이 강한 반면 '양미미'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성'이 강한 편이다.¹¹⁾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로 인한 '불안'이 아닌 '박사과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에 보다 집중하고자 개인의 기질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2) 자료 수집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과 이를 둘러싼 맥락 파악이 중요한데 이때 연구자는 참여자의 삶, 이야기와 거의 하나가 되어야만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선 연구자의 선이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참여자의 삶과 이야기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와 예상되는 흐름을 정리해 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그 후, 자료 구성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참여자인 '이링링', '양미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는 2020년에 직접 만남을 가지며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 연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가 추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동의를 얻은

10)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11) 심리학적 관점에서 불안은 흔히 '특성 불안(trait anxiety)'과 '상태 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별 짓는다. 특성 불안은 스트레스나 위협, 위협 등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성격 중 주요한 특성의 하나로 여겨지는 개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Dörnyei, 2005; 정진현, 2019: 8 재인용).

12)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우리는 참여자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들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Jean Clandinin, 염지숙 외 역, 2015: 65).

후에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짧게는 50분 정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안한 일상적 대화로 시작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이를 전사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을 연구 참여자들과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가까이 함께하게 되었지만 예상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만남을 가진 후 바로 ‘복기’를 통해 상황, 대화를 기록하여 ‘복기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면담자료’와 함께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와 복기기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면담 (+복기기록) 정보

		이령링		양미미	
		일시	시간	일시	시간
인터뷰	1차 인터뷰	2020년 4월 6일	1시간 1분 44초	2020년 4월 15일	49분 16초
	2차 인터뷰	2020년 4월 17일	2시간 30분	2020년 4월 22일	57분 52초
복기기록 ¹³⁾		일시	분량	일시	분량
		2020년 5월 13일	A4 1장	5월 2일 5월 9일	A4 3장 A4 3장

3) 자료 분석과 해석

연구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말하는 ‘3차원의 맥락(시간, 장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최종적인 연구 텍스트를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텍스트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 텍스트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바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의논을 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그 상황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 텍스트를 다시 한번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13) 내러티브 탐구는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내러티브 탐구 또한 질적 연구의 한 방법론이기에 3E(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 조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복기기록’은 ‘연구자일지’의 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때 ‘연구자’의 성찰뿐만 아니라, ‘참여관찰한 내용’, ‘면담내용’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기에 ‘복기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추후에 이러한 ‘복기기록’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복기기록’에서 놓치거나 왜곡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변해버린 ‘한국어’라는 존재

1)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한국어’

‘이링링’과 ‘양미미’에게 ‘한국어’는 처음부터 흥미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링링’과 ‘양미미’는 모두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한국어학과’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차선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링링’과 ‘양미미’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한동안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링링’은 “아, 이러면 안 되겠다.¹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하여 “전공수업(에서) 거의 1등”을 하게 되었다.

‘양미미’도 중국에서는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한국의 ‘다’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는 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실력이 급격하게 늘게 된다. 무엇보다 ‘양미미’에게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은 대학교 4학년 열린 ‘말하기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한 것이었다.

양미미: 한국어 말하기 재미있어 1등했어 그래서 나 이제는. 한국어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배우면 좀 아쉬워 대학원 다녀(아겠다고 생각했어)¹⁵⁾.

(중략)

연구자: 어머. 말하기 1등 한 것도 진짜 크겠다 그런 걸로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양미미: 맞아요. 아니면은 절대 대학원 다니는 생각도 없었어요.

〈‘양미미’와의 인터뷰, 20.04.15〉

‘양미미’에게 ‘말하기대회’에서의 1등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할 만큼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처럼, ‘이링링’과 ‘양미미’가 ‘한국어’에 재미를 느끼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한국어’를 통해 느낀 ‘성취감’이 주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한국어’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내는 자신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키운 것이다. 이는 이들이 ‘한국어’를 통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의적 요소이자 동기가 되는 ‘자기효능감’¹⁶⁾, ‘자아존중감’¹⁷⁾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토대로 ‘박사과정’까지 진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로는 좀처럼 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4) 큰 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기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15) 앞뒤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생략된 경우에 괄호(= ())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16) 김미영(2000)은 자기존중감이란 개인이 그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로운 한 인간으로 믿는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여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으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화 가능한 중심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안한나, 2018: 33).

17)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7)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정도이며, 개인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안한나, 2018: 34).

이링링: 스트레스, 그것도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았어. 석사 아니라 박사. 왜냐하면 박사니까.

연구자: 응.

이링링: 수련, 그런 요구?? 남들이 나한테 바라는 거 한층 더 높아진 거 같아서. 그런데 나, 내 실력으로는 한층 더 높아진 거 아니고, 그 간격 차이 때문에.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이링링’은 석사과정을 ‘가’대학교에서 하여 이곳의 문화,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석사 아니라 박사”이기 때문에 그 “간격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전처럼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들에게 “바라는 거 한층 더 높아진”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들에게 성취감보다는 부담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만들었다.¹⁸⁾

연구자: 네가 지금으로서 가장 불안한 게 뭐야? 불안하거나 두려운 거 같은 게.

이링링: 불안한 거?

연구자: 응.

이링링: 나, 올해 소논문 투고. 최소한 두 편 투고하고 싶어. 게재.

연구자: 올해에?

이링링: 응, 올해에. 근데 연구자 잘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불안해.

연구자: 빨리 소위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링링: 응, 실적. 그리고 소논문 쓰는 동시에 박사논문 주제(도) 찾아야 되고.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이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것은 물론, “박사논문 주제(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석사과정’과는 달리 ‘소논문’도 “최소한 두 편” 게재해야 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논문’과는 달리 ‘소논문 2 편 게재’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이다. 말 그대로 ‘소논문’은 “실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좋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양미미’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양미미: 사실 불안해. 공부해야 하는데 안 돼서 불안해. 정말 딱 과제만 해.

공부를 하려고 계획도 세워 봤는데, 잘 안 돼.

공부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 떠올라. 산만해져.

갑자기 사야 할 물건도 생각나고, 청소해야 할 것도 생각나고.

〈‘양미미’의 복기 기록, 20.05.09〉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것은 이제 “딱 과제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부족한 노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불안’이 가중되면서 집중이 어렵고 산만해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¹⁹⁾

18) 이를 제2언어 자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박사과정’이라는 변화한 맥락이 이들에게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당위적 자아’를 더 강화하였고 이러한 ‘당위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안한나(2018)도 과도한 불안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2) '생계'에 가까워진 '한국어'

이렇듯 '한국어'로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이 요원해지고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에는 점점 더 '한국어'라는 것이 학습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되기 시작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약간 그때²⁰⁾ 무조건 4학기 만에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
 이링링: 응, 있었어.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 박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있었어.
 연구자: 음~ 그런데 힘들지 않아? 그런데 이걸 박사까지.
 이링링: 힘들지.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끝에 중국에 돌아가도 일자리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찾을 수 있는데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소)논문 많이 써야 돼.
 연구자: 음~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더 빨리 단축 해야 되니까. 석사도 4학기만에.
 그런데 석사만 하고 돌아가면 좀 힘들어?
 이링링: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지.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실제로 '이링링'은 '가'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던 시기에 무조건 4학기 만에 졸업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박사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사학위'만으로는 "(중국의)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링링'에게 '박사과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²¹⁾

즉,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의 '박사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제 '한국어'는 학습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생계'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자아실현'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생계'와 연결되어 있고²²⁾ 이러한 '생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기에 '한국어'는 절박한 무언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계'를 위한 '직업'을 보장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소)논문도 많이 써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변화로 인해 이들은 '박사과정'을 할 만큼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 '양미미'도 이러한 '한국어'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한국어'를 '학습'함으로써 '성취'를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미미'는 자신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듯 했다.

20) '이링링'이 '가'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던 시기를 말한다.

21) 임희진(2021)에서는 지방대학의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박사과정 진학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동기가 주요 동기이자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인 '이링링', '양미미'에게도 나타난 주요한 박사과정 진학 동기라 할 수 있다.

22)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직업'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성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직업'의 목적이 '생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미미: 근데 나는 내가 요리를 해서 남이 먹을 때 되게 행복한 표정.
 나 그거 때문에 만족해 나. 스스로 먹으면 별 그냥 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먹을 때는 이런 거(스마트폰) 있어야 돼. 아니면 재미 없어
 연구자: (웃으며) 항상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tv 같은 거. 나도 보지
 양미미: 그렇지

〈‘양미미’와의 인터뷰, 20.04.22〉

‘양미미’는 공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면 ‘쇼핑, 인테리어’ 등으로 주의를 전환하여 ‘불안’을 낮추고자 하였는데 특히 ‘요리’에 애정이 남달랐다. 이는 단순한 ‘양미미’의 취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변해버린 의미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양미미’에게 ‘요리’를 통해 “남이 먹을 때 되게 행복한 표정”을 보여 주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잃어버린 ‘성취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생계’와 직결된 것이 되었기에 잠시 눈을 돌리더라도 떨쳐 버릴 수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너 슬럼프, 이렇게 연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좀 해?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또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링링: 응.
 연구자: (감탄하며) 와...
 이링링: 아니면 더 불안해져. 놀면 더 불안해져.
 연구자: 그래서 너는. 너는 원래 불안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그냥 불안하니까. 공부 때문에 불안한 거면 공부를 하고.
 이링링: 맞아.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이링링’은 실제로 “놀면 더 불안해져.”라는 말을 하며 안 할 수 없으니 다시 ‘한국어’를 마주하는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양미미’의 경우에도 인터뷰 당시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여전히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요리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한국어’에 더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안’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문공동체에 적응하여 학문적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양미미’가 요리를 통해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인정과 성취감을 느끼고자 한 것처럼, ‘아르바이트, 종교단체, 이성친구’ 등을 통해 이러한 인정과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²³⁾ 그러나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링링’과 ‘양미미’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집단에서의 인정이나 성취감은 한계가 있었다. 이는 ‘박사과정’에서의 학문공동체, 자신의 전공, 즉 이들에게는 ‘한국어’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곳에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면 근원적인 ‘불안’은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박성원·신동일(2014)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학부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문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종교단체’, ‘(이성)친구’ 등의 ‘하부 공동체’를 통해 인정과 수용되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학문공동체’에서의 어려움을 상쇄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2.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미래’: ‘노력’과 ‘결과’가 비례가 아닐 수 있음²⁴⁾

이전처럼 ‘성취감’을 느끼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져 가기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미래의 ‘생계’가 달려 있기에 완전히 놓을 수도 없는 ‘한국어’를 붙잡고 가는 이 시간을 이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일까.

연구자: 너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걸 버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버텨내겠다. 했을 때 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잖아. 너한테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이링링: 나? 나, 그냥 나중에. 그. 내 목표. 내 인생 목표. 실현하고. 좀, 그 유명한 사람 아닌데도.

아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노력하는 그런 사람.

연구자: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미래의 너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참는. 그런데 그렇게 참기에는 되게 힘들지 않아?

이게 미래만 보고 참기에는 극한으로 사람을 (웃음)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

이링링: 응.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되(었)잖아.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다.

연구자: 그런 마음으로. 이미 시작한 거니까. 내가 잘 마무리하겠다.

이링링: 응, 되돌아갈 수 없잖아.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이링링’은 “되돌아갈 수 없”기에²⁵⁾,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되(었)”기에 지금 “노력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희망’이 지금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인 것이다.

연구자: 음... 니가 언제까지 끝내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이링링: 언제까지 끝나?

연구자: 아,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기한이 있어?

이링링: 어, 난 그게 동계올림픽.

연구자: 동계올림픽이 언제지?

이링링: 2022년.

연구자: 아~ 그 전에 끝내고 가겠다.

이링링: 응.

연구자: 멋있다. 링링아. (웃음)

24) 본 연구의 출발은 2020년 1학기에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수강한 ‘질적연구실습’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들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비롯하여 참여관찰, 현지자료 분석, 포토에세이 작성 등 총 11개의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 학기의 시작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유학 생활’에서의 ‘적응’에 관심을 기울였고 ‘양미미’와는 ‘학업’에 관한 이야기보다 ‘요리, 인테리어, 다양한 학업 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미미’와는 ‘불안’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면담에서 많이 나누지는 못 하였다. 하지만 학기의 마지막 과제를 할 즈음에 ‘이링링’이 말하는 ‘불안’을 ‘양미미’ 또한 느끼고 있으며 ‘양미미’의 다양한 학업 외 활동과 취미의 기저에는 ‘이링링’과 다르지 않은 ‘특유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링링’과 ‘양미미’의 공통된 ‘불안’을 포착하고 이를 ‘박사과정’이라는 맥락과 연계 짓는 것까지의 연구 흐름으로 최근이야 가닥을 잡게 되면서 본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박사과정’과 관련하여 ‘불안’을 많이 이야기하였던 ‘이링링’과의 인터뷰가 주로 실리게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미미’와도 ‘불안’에 대한 대화를 보다 심도 있게 해 나갈 예정이다.

25) ‘양미미’도 인터뷰 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21.09.24의 만남)”라는 말을 얼마 전 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는 이제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통과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박사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링링: (웃음) 이거 나 환상일 수도 있어.

〈‘이링링’과의 인터뷰, 20.04.06〉

실제로 ‘이링링’은 ‘2022년’ 2월에는 중국으로 돌아가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엄청난 보상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대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금을 버티고 있다. 이러한 ‘이링링’에게 ‘돌아간 후의 중국’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인 미래를 품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상상의 공동체’이며 이것이 지금을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²⁶⁾ 그러나 ‘이링링’은 이것이 “환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기에 그저 “환상”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링링’에게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은 역설적으로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다.

연구자: 아~~ 너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아, 지금도 중국에 돌아가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논문을 많이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구나. 그리고 박사도 빨리 받아야 되고.

이링링: 맞아맞아. 졸업보다는 취업.

〈‘이링링’과의 인터뷰’ 2020.04.06.〉

‘이링링’에게는 한국에서의 ‘졸업’보다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의 ‘취업’이 더 중요하다. 즉, 몸은 한국에 있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졸업’은 결국 중국에 가서의 ‘취업’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위한 발판이다. ‘이링링’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상의 공동체’인 중국에서의 ‘취업’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 봐 ‘불안’을 느끼며 더욱 ‘소논문’을 더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²⁷⁾ 그리고 이것이 더 ‘성취감’을 불러오지 못하기에 ‘불안’을 강화한다. 실제로 ‘이링링’은 지금의 노력이 ‘상상의 공동체’로의 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즉,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링링: 나 그 책도 읽었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

연구자: (웃으면서) 아, 진짜!!! 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 책은 어때?

그런데 너 너무 열심히 하잖아. (웃음)

이링링: (웃음) 그 책 읽고 우울해졌어.

연구자: 어? 왜왜?

이링링: 지금 걸어온 길 다 거품될 수 있잖아. 나중에.

연구자: 어떤 내용이야? 내가 안 읽어 봐서 몰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

이링링: (웃으면서)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웃음)

〈‘이링링’과의 인터뷰’ 2020.04.06.〉

실제로 ‘이링링’은 자신의 노력이 “거품”이 되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게 되어 자신이 중국에서 바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좌절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졸업’이라는 ‘학업 이수’의 측면보다는 이를 통해 얻게 될 결과인

26) 박성원·신동일(2014)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고국에서 소수 집단에만 허용되는 문화 자본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의 공동체’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 속의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이 한국어 학습과 유학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의 과정을 지속시켜 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27)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징적 자본(학벌, 연구 성과, 학위수여 국가 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임희진, 2021: 199).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졸업’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면 ‘졸업’까지의 과정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졸업’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을 통한 ‘상상의 공동체’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품”이자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보다는 취업”, 즉 ‘학업 이수’보다는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지금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는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5.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중국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박사과정’이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느끼는 ‘특유의 불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통해 이전과는 달리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으며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한 강력한 외적 동기이자 지금을 버티게 해 주는 원동력인 ‘상상의 공동체(중국 대학교로의 취업)’가 희망이 됨과 동시에 ‘가능성’에 머무르기에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의 방식으로 ‘박사과정’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성별에 있어서도 ‘여자’인 연구 참여자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다소 거칠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박성원·신동일(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 손효영·염지숙(2013). 병설유치원 종일반교사의 딜레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101-126.
- 안한나(2018).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2), 27-54.
- 유지윤(2019).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진(2021). 지방대학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들의 진학동기와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7(2), 187-219.
- 정진현(2019).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불안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혜민·안정민(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3(3), 85-112.
- Cliandinin, D. J.(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염지숙 외 역(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 참고 사이트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토론〉 “외국인 대학원생의 불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어교육 전공 중국인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노정은(한성대학교)

이 연구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불안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불안 경험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임과 동시에 박사과정에 있으며 예비 교원으로서의 불안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한국어교육 전공의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는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닌 한국어교육 전공의 외국인 대학원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임과 동시에 예비 교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다층성을 보여주는 지점일 텐데 외국인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아닌 박사과정생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의 의도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비 한국어 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사과정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석사과정생들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박사과정보다는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과정생보다는 석사과정 외국인 대학원생이 한국인과는 다른 어떤 지점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박사과정 수료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로 연구 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염두에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하는 시간의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간적, 관계적 맥락 속에서 자신을 상호작용적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에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자료의 수집이 2번의 인터뷰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듭니다. 2회의 만남, 2-3시간 정도의 인터뷰 내용과 이를 보완할 복기기록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가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며,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복기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복기기록이 연구자일지라고 제시하셨는데, 별도의 만남이 있어 연구자일지의 형식을 통해 자료화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된 것인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부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이 연구에서는 불안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성취를 느끼기 어려우며, 어느 순간 한국어가 생계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의미를 연구자가 도출해 내고 있으며, 미래가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학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들은 예비 한국어 교원이므로 외국인 대학원생이 예비 교원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없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과정에서 느끼는 불안, 학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유사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한국어 교원, 예비 한국어 전문가로서 외국인 대학원생이 느끼는 불안감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요소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면 외국인 교원의 정체성과 연결해서도 더욱 많은 논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번역 양상 연구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중심으로-

황티장(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 김지혜(극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현대시를 중심으로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베트남 고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으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어 텍스트와 베트남어 텍스트 간의 번역 능력은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대학생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에서는 전공 수업 중에 번역 강의를 개설하고는 하는데, 강의 시수와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들의 번역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강의들이 학습자의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능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에서는 번역 수업과 통역 수업을 분리하지 않고 개설한다. 그런데 동시통역이 포함되어 있는 통역 활동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작업이 주를 이루는 번역 활동은 그 수행 방식이 다소 상이하다. 그런 점에서 이 강의는 학습자들이 통역과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개론 수업 이상이 되기 어렵다. 또한 B 대학에서는 이 수업의 대상 텍스트를 몇 개의 장르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한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변하는 국제 사회의 정치 경제적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한국어 전공 대학생이 다루어야 하거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텍스트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을 할 때 번역자는 원문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원문 텍스트의 콘텍스트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번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지금은 특정한 영역에 더 관심이 많더라도 학교교육에서는 이들이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번역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연구자들은 베트남 대학생 학습자들의 번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번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발표를 빌어서 베트남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여러 번역 활동 중에서도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현대시 번역 교육 내용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이 발표문에서 초점을 맞춘 베트남인 대학생 대상 번역 활동은 “한국 현대시의 베트남어 번역”으로,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원문에 해당하는 한국 현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시의 베트남어 번역문을 베트남의 현대시 향유 맥락에 맞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어 문학 텍스트와 베트남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 역량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 형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번역이라는 다면적이고 고차원적인 활동이 교육과정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한 이론을 검토(2장)하고, 베트남

현지의 대학생들이 수행한 번역텍스트 80편을 사례 분석(3장)한다.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는 문학번역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문학 번역 능력을 함양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학습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사례 분석 부분에서는 2장에서 확인한 요소를 원문 텍스트를 구성하는 4가지 측면인 어휘, 문법, 담화, 문화적 측면으로 정리한 후,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한국현대시인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번역한 텍스트 80편을 통해 각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 및 문제 지점을 검토하겠다. 이는 이론적으로 구체화한 번역 역량의 구성요소 별로 현재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한국현대시 번역 과정에서 유발할 오류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시 텍스트의 번역에서 학습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연구로써, 향후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현대시 번역 교육을 설계할 때 다룰 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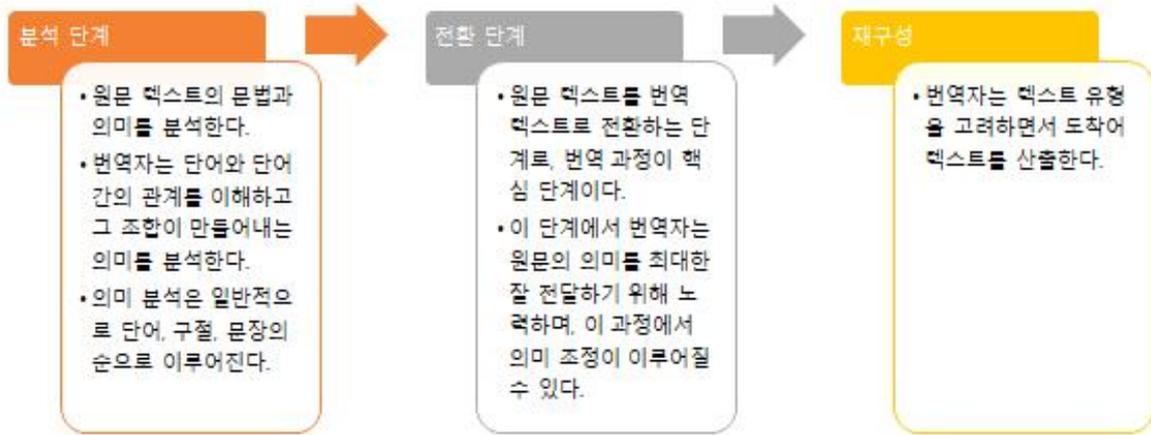
2.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현대시 번역 활동

2.1. 번역과 번역 능력

베트남인 대학생 대상 번역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이란 무엇이고 번역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번역 텍스트가 훌륭한 번역 텍스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초기 번역 이론에서는 원문 텍스트의 위상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앞세워서 원문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했다(신정아, 2009:89). 그러나 원문 텍스트의 기호와 번역 텍스트의 기호를 1:1로 결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성된 번역 텍스트가 과연 효용성이 높은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번역 과정의 ‘가변성’과 ‘역동성’이 드러나고, 번역이란 원문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의 ‘재생산’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언어를 하나의 기호로 보고 번역이란 기호의 변환이라고 보던 입장에서 벗어나, 번역이란 번역자의 정신 활동 결과물로서 인지적인 과정이자 간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입장이 확대된 것이다(한정은, 2014:233).

번역 텍스트란 원문 텍스트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에서 출발하며, 번역 텍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두 언어문화권 사이의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번역 활동에서 번역가가 맡은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는 두 언어문화권의 ‘중개자’로서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단어와 구절을 옮기는 것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가는 원문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도착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번역이란 단순한 언어 기호의 전환이 아니라, 문자라는 형식에 담겨 있는 정신과 이념, 그리고 문화의 전환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번역가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W.Wilss, 1976:101).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번역이란 “원문 텍스트의 언어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를 포착하고, 도착어로 그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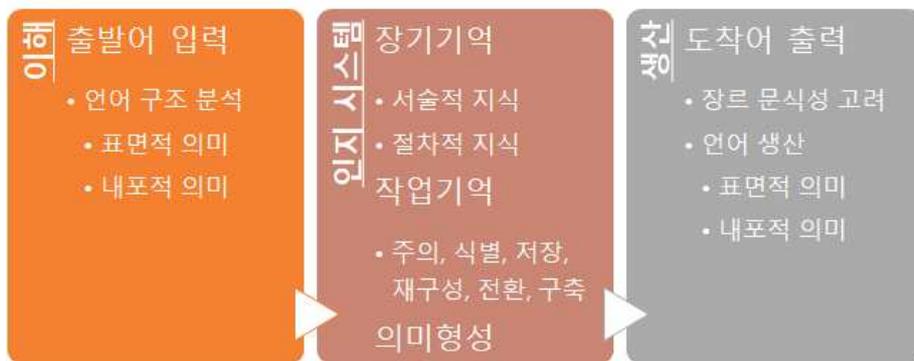
한편, 번역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번역 과정, 즉 번역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동안 번역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번역 과정은 분석(Analysis), 전환(transfer) 재구성(restructuring)으로 이해되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Nida, 1969:484).



〈그림 1〉 번역 과정에 대한 언어학 모델 (Nida, 1969:484)

위의 모형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번역자는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렇게 분석된 내용은 전환을 위해 고정된다. 둘째, 번역자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번역이란 재창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번역자는 텍스트의 유형을 고려하여 번역 텍스트를 구성한다. 즉, 번역 텍스트는 두 언어문화권 사이의 장르 문식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번역 과정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은 번역 활동 수행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번역 활동에는 번역가의 인지 심리학적인 사고과정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모델에 그 국면을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번역 과정의 인지 심리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번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번역자가 무엇을 지각하고 어떤 사고를 했는지에 주목한다. 언어란 사고의 표현이므로 번역가의 번역 텍스트 또한 원문 텍스트에 대한 그의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 관점에서는 번역 그 자체에 대한 번역가의 생각, 그리고 언어 전환이 일어날 때 발생한 번역가의 인지심리학적인 반응들에 주목한다. 언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발생하는 인지심리학적인 행위로는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텍스트, 담화 등의 차원을 고려한 원문의 접수, 원문의 코드 해석, 기억, 코딩, 표현이 제시되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심리학적 사고에 주목하는 관점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출발어의 이해’에 해당하는 ‘코드 해석’과 이해한 내용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도착어로 잘 표현하기 위한 ‘코딩’과 ‘표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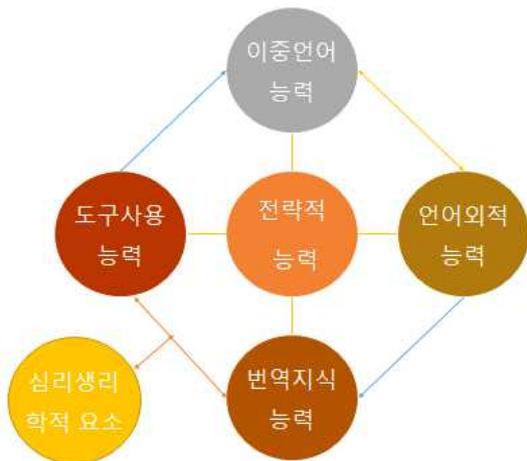
〈그림 2〉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
(유소룡(2007:7)을 양길류(2017:55)에서 재인용함)

다만, 이 모형에서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번역가의 내면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을 앞선 모델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번역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체계화하는 입장에서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용되는 인지 능력으로 ‘장기기억’과 ‘작업 기억’을 제기했다는 점, 장기기억에는 번역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자리잡고 있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원문 텍스트에 대한 의미가 형성되며 번역 행위에 대한 번역가의 인식과 이해 또한 공고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장기기억에서 제시한 부분은 번역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해당하고 작업 기억에 대한 부분은 번역 활동에 대한 실천적 이해에 해당한다. 번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번역가의 번역 경험은 번역 행위에 대한 그의 인식과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졸업 후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번역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번역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 경험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만난 해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번역 교육에서 육성해야 할 학습자의 번역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스페인의 PACTE(2003)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번역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 번역가와 외국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번역 실험을 한 후, 단순히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전문 번역가 사이의 차이점을 토대로 번역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달리 전문 번역가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 능력이란 ‘독자의 요구’와 ‘번역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원문 텍스트를 번역 텍스트로 전환하는 능력이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중언어능력, 언어외적 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심리-생리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중언어능력이란 두 개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두 언어에 대한 어휘적 지식, 문법적 지식, 텍스트적 지식, 사회언어적 지식은 물론이고, 두 언어를 오갈 때 발생하는 간섭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언어외적 능력이란 두 언어문화권에 대한 선언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그리고 암시적인 지식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두 언어문화권의 세계관과 문화적 감수성을 포함한다. 한편, 이 영역에는 특수 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번역지식능력이란 번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번역은 어떤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번역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역 실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의미한다. 전문도구 사용 능력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문서과 도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번역 전략적 능력은 번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번역의 계획, 수행, 평가, 보안을 포함한다. 심리생리학적 능력은 기억력, 지각



〈그림 3〉 번역의 하위능력 (PACTE, 2003:60)

력, 주의력, 정서적 감응력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호기심, 비판적 태도, 엄격한 태도, 자아 효능감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 그리고 창의력, 추론력, 분석력 등을 포함한다.

PACTE(2003:60)이 제시한 번역 능력의 하위 구성요소는 ‘번역가가 번역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발견

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에 해당하며 모든 능력은 사실상 원문 텍스트의 어휘, 문법, 텍스트, 문화 부분의 번역을 위해 사용된다. 결국 그런 점에서 번역 활동의 낱실은 번역가의 번역 역량으로서 그의 인지심리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번역 활동의 씨실은 여전히 원문 텍스트에 해당하며, 원문 텍스트의 어휘, 문법, 장르적 특성 등이 핵심적인 작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번역이란 번역가가 원문 텍스트를 도착어 언어문화권에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하는 총체적 행위로 원문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번역 텍스트를 집필하는 것이되, 이 모든 행위는 원문 텍스트의 어휘, 문법, 담화,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3장에서는 이 연구의 원문 텍스트인 한국현대시 <사평역에서>의 어휘적 측면과 문법적 측면, 담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이 각각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번역 오류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떤 번역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겠다.

2.2. 한국현대시의 번역

그간의 시문학 번역 관련 연구는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간의 비교비평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결과물에 대한 인상 비평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시문학의 언어란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보다는 함축성과 모호성을 지닌 것이며, 시문학이란 언어의 압축과 생략으로도 그 의미를 구성하는바, 이를 포착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의 번역 또한 번역 행위로서 수행되는 것으로 원문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의 기호 변환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기호 변환의 주체인 번역자는 원문 텍스트의 독자인 동시에 번역 텍스트의 생산자이며, 자신이 생산한 번역 텍스트의 독자를 의식하면서 번역을 수행한다. 즉, 문학 텍스트의 번역 또한 출발어로 쓰인 텍스트를 도착어 언어문화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화 매개적 행위에 해당하고 그때 번역가가 매개의 중심에 놓인다는 그 기본적인 틀은 일반적인 번역 행위와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문학 텍스트의 번역과 문학 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등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 '등가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나이다(E. Nida)의 견해를 다시 참조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텍스트에 구현해야 하는 등가성이란 '도착어 언어문화권의 독자'의 독서를 고려하여 구현된 '역동적 등가성'이어야 한다. 비문학 텍스트의 경우에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등가성을 고려할 때,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의 경우에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등가성을 따질 때, 번역 텍스트가 원문 텍스트에 구현된 정서적 감화력과 문학적 가치를 함께 제시하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¹⁾ 그런데 문학 텍스트의 정서적 감화력과 문학적 가치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구축된다.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는 문학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미학적 형식까지도 번역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J. Boase-Beier, 정영목 역, 2017:146-147; 박용삼, 2008:239). 내용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 형식의 번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²⁾

1) 해석 기반 번역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번역 과정을 원문 텍스트로부터의 의미 추출 단계와 해당 의미를 도착어로 재구성하기 위한 번역 텍스트의 작성 단계의 결합으로 보고, 문학의 번역이란 그 내용과 형식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번역 텍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F. Israel, 이향·편혜원·김도훈 역, 2004:89-104). 원문 텍스트의 형식적 물질성에 치우치기보다는 그것이 내용과 더불어 발생시키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2) 언어별로 그 의미와 형태의 관계, 의미와 소리 사이의 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다수의 번역가들이 문학의 형식적 효과를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문학을 번역은 “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이 빚어낸 시적 효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언어라는 표현 기재가 달라질 수 없는 번역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원문 텍스트와 ‘등가 관계’에 있는 시적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한다. 즉, 문학 텍스트에서 고려하는 등가성과 의사소통성이란 새로운 언어 기호를 통한 원문 텍스트의 문학성을 ‘등가적으로 재현’하고, 독자들이 이 문학성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번역이란 기본적으로 언어 기호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미와 소리값, 의미와 형태소 간의 연결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면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가 상호 연결된 형식이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가 갖추고 있는 문학적인 형식과 내용을 모두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 번역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쾨르(P. Ricoeur, 윤성우·이향 역, 2006:115-116)을 참조해볼 수 있다. 그는 번역 텍스트가 원문 텍스트의 좋은 번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텍스트가 필요하며 그때의 기준 텍스트는 원문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 전달되어야 할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학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3의 텍스트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학 텍스트의 번역에서 그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등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항시 ‘추정’ 작업으로서 이루어진다. 또한 번역 텍스트가 원문 텍스트의 문학적 가치, 그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의미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며 양쪽을 모두 해석하고 등가성을 구축하기 위한 수정-검토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문학 텍스트만의 ‘등가성’이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에서부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을 설계 및 운영하고, 시시때때로 그 전략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 발생하는 상호 참조적 과정을 잘 보여주는 모형 중의 하나는 라드미랄(J. Ladmiral)의 번역 모델이다(전성기, 2016:236-237).



〈그림 4〉 라드미랄(J. Ladmiral)의 번역 모형- 전성기(2006)을 변형 제시함

이 모형에서 제시한 1단계인 읽기-해석 단계는 번역가가 원문 텍스트의 독자로서 그 의미를 최대한 잘 이해하고 해석

하는 단계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려는 해석이론의 ‘탈언어화’ 과정과 유사하다. 2단계인 재표현 단계는 번역 글 쓰기와 번역 비평 사이의 반복적이고 메타적인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되며, 읽기를 통한 번역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순환되면서 완성체로 나아가는 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학 텍스트의 번역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들은 시문학 원문 텍스트를 기점으로 진행되고, 이는 다시금 시문학 원문 텍스트의 어휘적 표현(김세정, 2003)와 표현과 문법적 측면(김순영, 2008; 서지영, 2010), 담화적 측면(한미애, 2010)과 문화적 측면(박진임, 2004; 주옥파, 2006; 박옥수, 2015) 등으로 구분된다.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과 번역에서 ‘등가성’을 탐색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고려한 번역가의 전략과 행위 등의 세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분류할 때에는 거시적인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분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으며, 그래서 경계에 따른 유실을 최소화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3장의 사례 분석 자료 구분의 큰 틀로 삼고자 한다.

3.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현대시 번역 양상

3.1. 사례 분석 연구의 설계

1) 사례 분석용 번역 텍스트 수집 방법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한국문학 번역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소재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에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번역 텍스트 수집 공고를 보냈다. 번역 텍스트 수집 공고문에는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가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한 결과를 수집한다는 내용과 수집 대상 작품 목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이 공고를 통해 연락한 학습자들과 SNS와 E-mail로 연락을 주로 받으며 IRB의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주고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분석 제시한 80편의 문학 번역 텍스트는 그중에서도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이 제공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 4학년이었고, 2학년과 3학년도 소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동일한 한국현대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집 공고가 배포되기 얼마 전에 소속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국문학번역대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때 번역 대상 작품으로 제시된 작품이 연구자의 수집 대상 작품 목록에 제시되어 있었고, 이에 번역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한 ‘번역 대회’는 학생들에게 원문 텍스트를 제공한 후 일주일 간의 번역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료를 참고하여 번역 텍스트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수집한 번역 텍스트는 학생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원문 텍스트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번역 기술한 결과물이다.

2) 번역 원문 텍스트: 곽재구 〈사평역에서〉

베트남 대학생들의 번역 연습에 활용될 작품을 선정할 때에는 그 작품이 ‘번역’이라는 상호 교류 활동에 적합한지와 ‘교육’이라는 상황에 적합한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번역’이라는 ‘상호 교류 활동’에 적합한 작품인지를 묻는 질문은

두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그 작품이 한국의 입장에서 그 작품이 베트남에게 소개되어도 될 만한 작품인가-또는 상대 국가가 우리를 이해할 때 해당 영역을 포함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의 입장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점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이라는 가치 지향 활동에 적합한 작품인지를 물을 때에는 먼저 그것이 문학작품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인가 하는 점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작품이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거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인가 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아울러서 이 연구에서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1983)을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툇밥을 불빛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빼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사평역에서> (1983)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한국의 자국 문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한국문학 관련 장서에도 수록된 적이 있는 작품으로 한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영역에서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 영역 모두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탄탄한 시적 구조 위에 현실적 상상력과 낭만적 상상력을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리얼리즘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권영민, 2004). 즉,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와 ‘교육’ 활동의 제재라는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내용은 현재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궁금해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현자들이 앞장서서 타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전거로 자신의 발전을 가다듬어 나간 경험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을 거울 삼아서 개진했던 ‘유이떤 운동’이다. 비슷하게 베트남은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발전 방식을 거울삼아 자국의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궁금점이 파생되고는 하는데, 그중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의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가 하는 것이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사회적으로 명암을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할 때,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갔는가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사평역에서>는 70년대부터 이어진 산업화의 그림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즉 이 시는 베트남이 한국 또는 한국인과 관련하여 알고 싶어하는 점과,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한국과 관련하여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

3.2.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현대시 번역 양상 분석

앞에서 우리는 번역과정은 번역가가 출발어 언어문화권과 도착어 언어문화권을 매개하는 작업으로서 원문 텍스트의 구성요소를 기점으로 번역가가 등가성과 상호작용성을 고려하여 구현한 전략으로 실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번역가의 전략은 그가 '등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 번역 텍스트의 문학적 형식과 가독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번역 결과물을 가변성이 큰 '번역 행위'가 아닌 원문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원문 텍스트의 구성요소는 선행 연구의 방식에 따라 어휘적 측면, 문법과 표현의 측면, 담화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1) 원문 이해에 있어 어휘 부족

번역 작업은 학습자들의 원문 텍스트 이해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목표어로 된 원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원만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평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어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할 때 어색하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아래 번역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베트남어
그믐처럼 멧은 줄고	Giống như những ngày cuối năm (SV-6)
	Vài người đang gà gât như đêm trăng già (SV-5)
	Tựa như năm ngoái , có vài người ngủ gât (SV-68)
	Giống như năm ngoái , tôi đã làm được vài giấc ngủ (SV-25)
	Tựa đêm mãn nguyệt (SV-31)
한줌의 톱밥을 불빛속에 던져주었다.	Lò sưởi ấm lại được châm thêm gỗ (SV-37)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Vài chiếc lá như những chiếc lá đơn độc (SV-25)
	Ô cửa sổ tựa như lá mùa thu (SV-45)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Vẫn trôi mình trên cánh đồng tuyết (SV-43)

먼저, 어휘 측면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그믐'이라는 단어이다. 80명 중 절반 정도는 '그믐처럼 멧은 줄고'에서의 '그믐'의 본래 뜻인 '그해의 마지막'날로 파악하지 못하고 SV-6 학습자처럼 "연말"로, SV-68, SV-25 학습자처럼 "작년"으로, SV-5, SV-31 학습자처럼 "보름달"의 뜻으로 이해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단어의 본래 뜻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원문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평역에서>의 '그믐'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인 듯 보이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SV-25 학습자의 번역문에서는 "몇"이라는 단어를 "몇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몇 번의 줄임'으로 이해하여 오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는 학습자가 그 진의를 추론해야 하고, 그 진의 추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에게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은 번역 강의를 학습자들의 번역 실천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할 때, 원문 텍스트의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 시간이 일 주일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시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SV-37 학습자의 번역문에서는 '한줌의 툽밥'을 '목재'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툽밥'과 '목재'는 베트남에서도 서로 다른 뜻이다. 그런데 이 학습자의 살면서 '툽밥'도 '목재'도 본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낯선 사물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번역했다. 이는 학습자의 경험과 베트남어의 어휘력이 번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한자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한자 차용어에 부여한 의미가 상이한 데에서 발생한 오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 SV-25 학습자의 번역문에는 '단풍'이라는 단어를 '가을에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단풍이 든 잎'이나 '단풍나무의 잎'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단풍이라는 단어를 한자음을 빌린 베트남어인 'đơn độc (đơn phương)'와 의미적인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어에는 기숙사 (kí túc xá), 준비 (chuẩn bị), 동지 (đồng chí/ đồng chí) 등과 같이 한국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는 어휘가 있다.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학습자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인식하며 한자어를 학습한다. SV-25 학습자의 오류 또한 위와 같은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문 텍스트의 어휘를 파악하지 못하여 번역물에 번역하지 않거나 회피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SV-45 학습자와 SV-43 학습자들의 번역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SV-45 학습자는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문장에서의 '몇 잎'과 '달다' 동사를 생략하였고 SV-43 학습자의 '낮설음도 빼아픔도 다 설원인데' 문장에서 '낮설음도 빼아픔도 다' 부분이 생략되었다. 위 두 학습자들의 단어 생략이 원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 교육적 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양상을 통하여 <사평역에서> 시작을 번역하는 데에 여전히 어휘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휘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한자음을 가진 베트남어로 추측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양상들이 포착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원만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거나 적당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 원문 이해에 있어 표현과 문법을 이해할 지식 부족

앞서 살펴본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어휘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베트남어로 번역하거나 완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한 경우가 부족하였다. 이는 어휘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의 번역본 살펴본 결과 어휘 뿐만 아니라 문법, 문장의 구성, 순서와 같은 요소도 상당히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어 문장 어순과 베트남어 문장의 어순이 정반대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양상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베트남어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Chuyến tàu cuối cùng mấy khi đến (SV-17) Chuyến tàu cuối cùng không bao giờ đến (SV-19) Chuyến tàu cuối cùng hiếm khi đến (SV-7) Chuyến tàu cuối đường như thổi cập bến (SV-33)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Tắm đôi tay này với thứ ánh sáng xanh (SV-43)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Đôi khi đời là một lúc men say Tôi mân mê giỏ táo cùng với xâu cá Song, tôi như biết rằng, mọi thứ đang chìm dần trong im lặng Mang theo đó là nỗi nhớ nhà da diết (SV-54)
	Mân mê xâu cá khô cùng giỏ táo Lòng chợt nhớ về cổ hương Rồi chìm vào lặng im Đời mấy khi được sống trong cơn say này (SV-59)
	Cuộc sống tôi như chìm vào cơn say Mọi người im lặng nhưng đều biết Mang theo xâu cá đu và giỏ táo Ai cũng đang mong mỗi hồi hương (SV-69)

먼저 80명의 학습자 중 68명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문장을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들은 ‘좀처럼’의 뜻만 의존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는데 정확한 뜻으로 번역하지 못하였다. 막차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원문은 ‘가끔 온다’나 ‘절대 오지 않다’로 서술되고 있다. SV-17 학습자와 SV-18 학습자의 번역물에서는 막차가 ‘가끔 온다’나 아주 ‘가끔 온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다. 또한, SV-19 학습자와 SV-33 학습자는 ‘막차가 절대 오지 않다’와 ‘막차가 더 이상 오지 않다’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어 문법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시구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에 사용한 문법을 인식, 이해, 해석, 검토하는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은 그 어순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들이 복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SV-54, SV-59, SV-69 학습자의 감상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3명의 학습자들은 문장의 어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각각 다르게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있다.

SV-54 학습자의 경우, 목적절에 해당하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을 주절로 이해하고 있어서 원문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해당 문장을 잘못 번역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문장에 해당하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또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SV-59 학습자의 경우,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을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주어로 번역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번역물에서 원문인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은 문장의 주어가 되었지만 ‘인생에 취할수 있는 기회는 몇 번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도 학습자의 문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원문 문장 해석이 안 되어 번역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SV-69 학습자의 경우, ‘귀향하는 기분으로’은 가장 핵심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의 번역물에서도 ‘귀향하는 기분’이 번역문장의 주어가 되었는데 ‘누구나 귀향하고 싶다’로 번역하고 있다. SV-69도 SV-54와 SV-59 학습자처럼 문장의 어순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원문의 뜻을 원만하게 파악하지 못해 결국 번역물이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는 여전히 한국어 어휘, 문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 담화 측면

위에서 언급한 어휘와 문법 부분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 같은 요소를 통하여 직설적으로 의미가 표현된 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번역물을 확인 결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담화적 측면에서도 학습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이 확인되었다. 아래 번역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Đôi bàn tay xanh của tôi hòa vào trong ánh sáng đỏ rực (SV-1)
	Làm ướt lòng bàn tay bằng ánh lửa (SV-3)
	Làm ướt bàn tay của màu xanh dương trong ánh lửa (SV-4)
	Ánh lửa nhuộm sắc xanh ôm trọn lòng bàn tay (SV-32)
그래 지금은 모두 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Đều làm ướt đôi tai bằng hòa âm của tuyết (SV-3)
	Giờ đây chúng tôi đều ngâm đôi tai mình Vào trong những thanh âm hài hòa ấy của tuyết (SV-17)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Tôi gọi tên những khoảnh khắc mà mình nhưng nhớ Và ném những giọt nước mắt vào trong ánh lửa (SV-21)
	Gọi ra những khoảnh khắc tôi đã bỏ lỡ Tôi ném một ít nước mắt về phía ánh sáng (SV-34)

화용의 측면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번역 양상을 살펴볼 때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그래 지금은 모두 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그리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의 세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원문 내용을 베트남어로 직역했고, 그 결과 표현도 어색하고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 번역문이 생산되었다.

먼저 많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청색의 손바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청색의 손바닥은 아마도 추위에 얼어 파랗게 변한 손바닥을 표현한 것이다(양병호, 2003:9). 그러나 대부분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추위로 인하여 손바닥의 색깔이 변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해 (SV-1 와 SV-4 학습자와 같이) 베트남어의 관용적 표현인 ‘파란색 손’으로 번역하고 있다. 베트남어의 관용적 표현, ‘파란색 손’은 위중한 병에 걸린 여성의 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을 이 시텍스트의 번역에 사용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SV-1 와 SV-4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SV-32 학습자의 번역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파란색 손’이 아니라, ‘청색의 불빛’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어의 표현인 ‘청색의 불빛’을 인식한 표현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시다’를 번역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시다’를 물 등의 액체를 물려 젖게 한다는 뜻으로 배워온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불빛 속에 적셔두고”와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다”를 번역할 때 위 뜻을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문장은 베트남어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구이다. SV-3와 SV-17 학습자의 번역문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원래 뜻을 그대로 베트남어로 번역하였으나 맥락에 맞는 표현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 학습자들은 ‘불빛 속에 적셔두고’와 ‘귀를 적신다’를 같은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다.

위 현상은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부분의 번역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V-21와 SV-34 학습자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전달되지만 맥락의 의미 고려없이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시작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시텍스트의 맥락에 대하여 충분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물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번역 전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텍스트 내용 파악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화용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들에게 진정한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교수학습 내용이 필요하다.

4) 문화 측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사평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 차이로 인하여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베트남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번역물을 작성하였다. 이는 아래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베트남어
대합실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Ngoài nhà chờ tuyết rơi trắng cả đêm Luồng gió trắng hoa đình hương đang bùng sáng cạnh mấy ô cửa sổ (SV-12)
	Từ đình hương tím trắng , từng ô cửa kính buốt lạnh hơi tuyết (SV-2)
	Tùng đóa đình hương tím trắng Tùng chiếc cửa sổ tuyết lạnh căm (SV-8)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Mãn mê một xâu cá chỉ vàng và một giỏ táo Vói tâm trạng hồi hương (SV-11)
	Tôi mãn mê giỏ táo cùng với xâu cá (SV-54)
	Mãn mê xâu cá khô cùng giỏ táo Lòng chợt nhớ về cố hương (SV-59)
	Mang theo xâu cá đu và giỏ táo Ai cũng đang mong môi hồi hương (SV-69)

먼저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화 차이 문제는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 환경과 산물의 상이함에서 발생했다. “대합실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부분을 살펴보겠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추위 특히 눈이 내리는 추위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이 내용을 번역하는 데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SV-12, SV-2, SV-8 학습자들은 유리창에 눈보라가 들이쳐 수수꽃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리창 밖에 수수꽃들이 활짝 피어있다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다. SV-12 학습자의 경우, 유리창 옆에 수수꽃이 활짝 피어 있다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다. SV-2 학습자와 SV-8 학습자도 역시 수수꽃이 흰색과 보라색 두 가지의 색깔로 피어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추위로 인한 서민들의 힘듦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SV-11, SV-54, SV-59, SV-69 학습자들은 “한 두릅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두릅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는 작품에서 핵심적인 이미지가 아니지만 그 당시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관련한 내용인데 많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번역물에서 정확하지 못한 번역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굴비를 잘 몰라서 베트남의 생선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생선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습자들의 경우, 문화 차이로 인한 번역이 어려운 경우에 베트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번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번역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화 측면의 문제는 장르 문식성의 인식과 이해, 재구성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한국 시작품을 베트남인 독자에게 읽히는 데에 베트남 전통시의 율격과 형식에 맞추어 재창작하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베트남어는 6성 언어이고, 그래서 전통시에서부터 현대시까지 시 텍스트의 율격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베트남 시에서 율격은 행 별로 나오는 단어의 성조와 이러한 단어의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번역 텍스트는 대부분 원문 텍스트를 뜻을 그대로 풀어 번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 학습자들은 한국현대시를 베트남인이 시라고 느낄 수 있는 6-8체시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이와

같은 번역을 시도한 참여 학습자의 번역 텍스트이다. .

Chuyến tàu cuối **lâu rồi** chẳng ghé **qua**
 Ngoài trời tuyết nhuộm màn đêm trắng **xoá**
 Từ Đình Hương dệt khung cửa chói **loá**
 Lửa rom hồng nhóm một chút đông **xa**
 Một hai kẻ gục đầu bên thành **toa**
 Ba bốn người ho khan cơn cảm **lạnh**
 Hoài niệm xưa tìm ta trong cô **quạnh**
 Ánh lửa dày - ném mạnh nắm mùn **khô**
 Lời trong lòng tựa hồ hoá hư **vô**
 Tay trong lửa lạnh màu xanh biêng **biếc**
 Không một ai mở miệng hay cất **tiếng**
 Dù chỉ là vòn vện một hai **câu**
 Ai cũng biết phải yên lặng thật **lâu**
 Như thể người mệnh mang trong men **rượu**

Như thể người đang về nơi đoàn **tụ**
 Mà tay cầm râu cá, giỏ táo **đầy**
 Trong tiếng ho dai dẳng chẳng voi **vây**
 Trong làn khói rơi trên môi đắng **chát**
 Lời hoa tuyết thâm thì như lời **hát**
 Ngâm tai mình trong suối mát âm **thanh**
 Quá nửa đêm trời rồi sẽ tàn **canh**
 Chấn tuyết trắng đắp nổi đau yên **ngủ**
 Lá phong hết những ô cửa sổ **cũ**
 Nơi tàu dừng ta tự hỏi nơi **nao**
 Hoài niệm xưa gọi ta trong thôn **xao**
 Ánh lửa tàn - ném mạnh nắm lệ **trào**.
 (SV-33)

번역본을 살펴보면 SV-33 학습자는 <사평역에서>를 베트남 전통시의 6-8체시로 번역하고 있다. 6-8체시는 홀수행에는 6단어와 짝수행에는 8단어로 구성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작품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또한, 각 행의 끝단어들은 같은 끝모음과 같은 성조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이 학습자의 번역본이 이 규칙들을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를 중심으로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첫째, 번역과정과 현대시 번역에 이론을 고찰하였고 둘째,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의 한국현대시 번역 텍스트를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 고찰하였다. 현재 이 발표문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번역 텍스트 분석 부분은 아직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제시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번역 결과물로 제출한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이들이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였는지를 추론할 단서들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발표문에는 다소 단편적으로 학습자들의 번역 내용과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향후 학습자들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2차 분석과 3차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어휘, 표현과 문법, 담화, 문화 부분에서 어떤 고민과 미해결 지점이 포착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이 연구가 완성된다면 향후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번역 수업을 통해서 어떤 과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재구(1983), 사평역에서, 사평역에서, 창작과비평사.

권영민(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세정(2003), 텍스트의 정보성: 문학 작품 속 어휘 번역, 번역학연구 4(2), 한국번역학회, 49-69.

김순영(2008), 문학 작품 속의 감정 은유 번역, 번역학연구, 9(3), 한국번역학회, 7-26.

박옥수(2015),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의 기능적 분석과 번역 전략 연구, 동화와번역 30, 건국대학교중원인문연구소, 75-85.

박용삼(2008), 번역 과정에서 기능적 문장 관점과 초점화, 독일어문학, 한국독일어문학회, 16(2), 249-270.

박진임(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97-111.

서지영(2010), 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시 번역 연구,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신정아(2009), 조르주 무냉(G. Moun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10(1), 한국번역학회, 83-101.

양길류(2017), 사고구술법을 통한 번역과정 연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호(2003), [사평역에서]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Vol.50, 한국언어문학회,

전성기(2016), 어린왕자의 번역 문법: 문법, 작품, 번역의 회통적 탐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주옥파(2006), 중한 문화 차이의 번역에 관한 소고,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5-394.

한미애(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 번역 가능성 - 소나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한국번역학회, 293-310.

한정은(2014), 학부 중한번역수업에서의 번역 이론 적용 가능성- 해석 이론 중심의 고찰, 통역과 번역 16(1), 한국통역번역학회, 225-252.

Boase-Beier, J.,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정영목 역(2017), 문화와 번역, 강.

Israel, F., Identite, alterite, equivalence? 이향·편혜원·김도훈 역(2004), 통번역과 등가, 한국문화사.

Nida, E.(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PACTE(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Alves, F. (ed.). *Triangulating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Ricoeur, P., Sur la traduction, 윤성우·이향 역(2006), 번역론: 번역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Wilss, W(1976),). Perspectives and limitations of a didactic framework for the teaching of translation. In R. Brislin (Ed.), *Translation applications and research* (pp. 117-137). New York: Gardner

〈토론〉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번역 양상 연구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오문경(성균관대학교)

선생님의 연구는 한국 현대시를 중심으로 베트남인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 교육 내용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의 번역과 번역 능력에 대한 중요 모형들과 한국 현대시의 번역을 라드미랄의 번역 모델을 고찰하고, 시문학 원문 텍스트를 기점으로 시문학 원문 텍스트의 어휘적 표현, 표현과 문법적 측면, 담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번역 능력이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대학생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량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외 현지 대학생들이 진행한 시 번역의 실제 오류 사례를 통해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매우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공유해 주신 연구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님의 연구는 체계적인 번역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번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물인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작품성이 뛰어나며 교육적일뿐 아니라 한국과 관련하여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문학의 번역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높은 수준의 번역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 교육 내용 설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시문학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연구에서 분석 제시한 번역 텍스트를 작성한 학습자 인적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호치민국립대학교 소속 학생들로 대부분 4학년, 2학년, 3학년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 토픽 4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에는 제시되지 않은 학년별, 토픽 등급별로 다르게 분석된 사례가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선생님의 연구는 번역 이론을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어휘적, 문법적, 담화적,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영역의 내용을 보면 결국 어휘 측면의 교육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휘 항목에는 의미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법의 다른 특징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측면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느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어휘적 측면, 문법적 측면, 담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이 번역 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태는 어떠한지와,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최근 한국어 통번역 교육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번역 교육 내용에 대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수자의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교육 내용의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이 혹여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번역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내외 한국어 통번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이로써 특히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